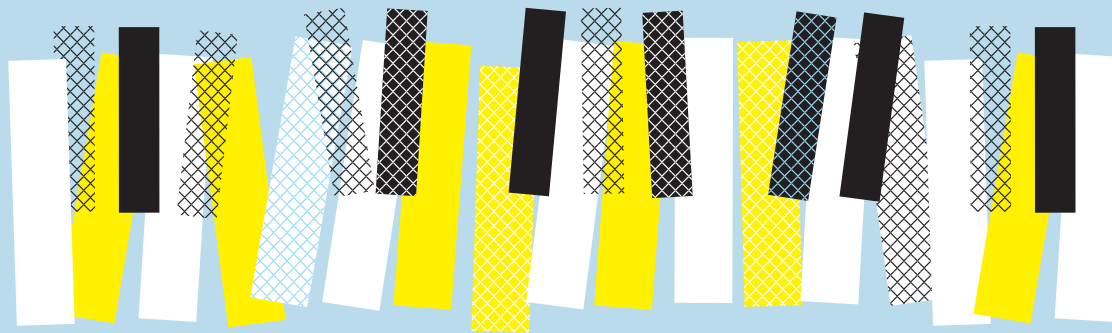


재즈를 듣다 - 6

스윙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사조영웅전’, ‘신조협려’, ‘의천도룡기’ 등의 무협 소설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용의 작품을 읽다 보면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소림, 무당, 아미, 곤륜 같은 문파의 이름에 익숙해진다. 그중에서도 외강내유형의 소림파와 외유내강형의 무당파가 사실상 양대 문파로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재즈에서는 마치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콜맨 호킨스(Coleman Hawkins) 계보를 잇는 ‘핫 재즈(Hot Jazz)’와 빅스 바이더벡(Bix Beiderbecke), 레스터 영(Lester Young) 계보를 잇는 ‘쿨 재즈(Cool Jazz)’ 구도와 비슷해 보인다.

그뿐 아니라 무협 세계 초고수를 (아마도 오행 사상에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듯) 동서남북 및 중앙에 배치해 놓고 각각 동사, 서독, 남제, 북제, 중신통이라 칭했다. 우연히도 재즈사(史)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 또한 다섯 군데가 있다. 동-뉴욕, 서-샌자스시티, 남-뉴올리언스, 북-시카고, 중앙-세인트루이스다. 도시가 이렇게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뉴욕을 제외하면 모두 미시시피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최남단 뉴올리언스에서 증기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블루스의 고향’ 멤피스를 지나)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한다. 여기에서 서쪽 지류인 미주리강을 따라가면 캔자스시티가, 북동쪽 지류인 일리노이강을 따라가다 보면 시카고에 다다른다. 또한 이 강을 따라 대륙을 종단하는 철도가 건설됐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뉴올리언스 사창가였

던 스토리빌이 폐쇄되자 킹 올리버 등 연주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시카고로 이동할 때 아마 이 철도를 이용했을 것이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뉴욕 증시가 대폭락했다. 이후 시작된 10년간 지속한 대공황은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대혼란을 초래한다. 더구나 미국은 1919년 시행된 금주법으로 인해 음주가 불법이었다. 어느 때보다도 암울하고 침울해야 할 이 시기가 역설적으로 빅밴드 스윙 재즈의 황금기였다. 아마도 우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도피처로서 큰 인기를 끌었을 것이다. 클라리넷 연주자인 베니 굿맨(Benny Goodman)은 스윙 재즈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중 하나다. 9세 때 처음 클라리넷을 시작해 12세 때에 이미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시카고에서 태어난 덕분에 뉴올리언스에서 온 초기 재즈 거물들의 연주를 빨리 접할 수 있었다. 물론 ‘오리지널 디스랜드 재즈 밴드(ODJB)’ 음반도 틀림없이 들었으리라고 본다. 첫 번째 히트곡은 1934년 발표한 ‘달빛(= Moonglow)’이다. 이 곡은 1989년 개봉한 영화 ‘사랑의 행로(= The Fabulous Baker Boys)’ 사운드트랙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 재즈 피아니스트인 신관웅 씨가 합정역 근처에서 오랜 세월 운영했던 재즈바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표곡은 뽀니 뽀니 해도 ‘씽 씽 씽(Sing, Sing, Sing)’이다. 가수이자 트럼펫 주자인 루이스 프리마(Louis Prima)가 1936년에 작곡했다.

그가 ‘스윙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인종차별이 당연한 시대이다 보니) 백인이란 점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작 본인은 차별반대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흑백이 함께 연주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흑인 연주자인 테디 윌슨(Teddy Wilson), 라이오넬 햄프턴(Lionel Hampton)을 자신의 밴드에 고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공의 진짜 숨은 주역은 플레처 헨더슨(Fletcher Henderson)이다. 그는 음악적 재능은 뛰어났으나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밴드 리더로서는 전혀 자질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상업적 성공은 커녕 실패만을 반복하다 뇌일혈로 사망한다. 베니 굿맨은 그가 남긴 뛰어난 편곡을 대부분 인수함으로써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플레처 헨더슨의 대표곡으로는 ‘달콤한 발 구르기(= Sugar Foot Stomp)’, ‘세인트루이스 셔플(= St. Louis Shuffle)’, ‘블루스를 노래하네(= Singin’ The Blues)’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손목인이란 분이 녹음한 ‘썩 썩 썩’이 남아 있다. 아마도 베니 굿맨 연주와 플레처 헨더슨 연주를 모두 참고하여 모방한 듯하다.

베니 굿맨은 녹음 기술에서도 큰 혜택을 받은 행운아랄 수 있다. 스윙 시대로 넘어오며 비로소 녹음 기술이 들어줄 만한 수준에 다다른 듯하다. 전성기 연주를 듣고 싶다면 1938년의 ‘카네기 홀 재즈 콘서트(Carnegie Hall Jazz Concert)’를, 좋은 음질로 듣고 싶다면 ‘베니 굿맨 하이파이(= B.G. in Hi-Fi)’란 음반을 추천한다.



그림 2. 글렌 밀러 / 출처 : britannica.com

글렌 밀러(Glenn Miller)는 베니 굿맨과 함께 스윙 재즈 인기를 양분했던 백인 트럼본 연주자다. 베니 굿맨과 외모가 비슷해 종종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 대표곡은 ‘인 더 무드(= In The Mood)’이다. 1941년 개봉한 ‘썬 밸리 세레나데(= Sun Valley Serenade)’라는 영화에 이 곡 전체를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촬영한 것을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글렌 밀러는

죽음에 관한 설이 분분하다. 미 공군의 공식 발표는 2차 대전 중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지만, 사실은 파리 홍등가에서 복상사한 것을 사기 저하를 우려한 미군이 조작했다는 주장도 있다.

또 한 명의 빅밴드 리더인 폴 화이트먼(Paul Whiteman)은 당시엔 대단한 인기를 누리긴 했지만, 훗날의 평가는 상업적으로만 성공했을 뿐 음악적 가치는 별로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빅스 바이더백이 이 밴드에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Rhapsody In Blue)’를 초연했다는 명예로 인해 역사에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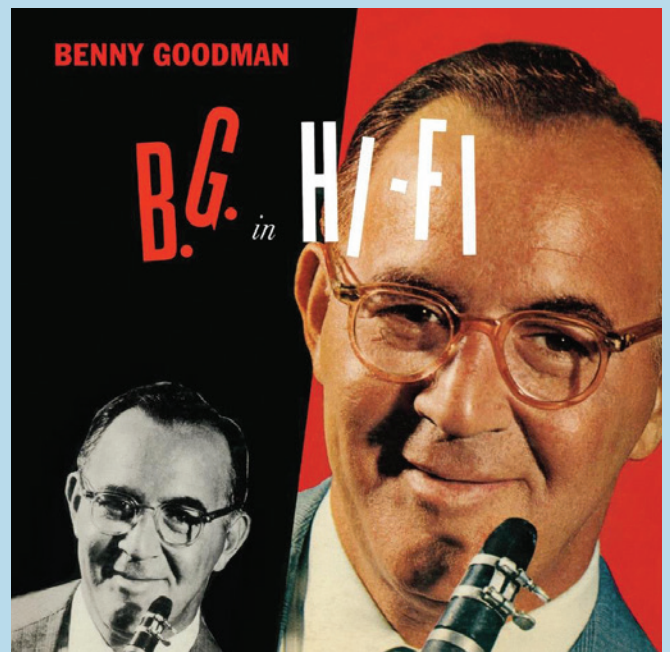


그림 1. 베니 굿맨의 ‘카네기 홀 재즈 콘서트’와 ‘베니 굿맨 하이파이’ / 출처 : amazon.co.jp, cede.com

이 시점에서 ‘스윙(Swing)’이란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사전을 검색하면 ‘흔들다, 그네, 휘두르다’ 등 여러 뜻이 나온다. 재즈에서 스윙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우선 1930년대 미국에서 대유행한 빅밴드 재즈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대단히 능숙하고 훌륭한 연주를 가리켜 ‘스윙한다’고 표현한다. 이 용법은 힙합 계통에서 쓰는 그루브(Groove)와 비슷하다. 따라서 빅밴드뿐만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비밥 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세간의 평가를 인용하자면 베니 굿맨은 스윙 재즈이면서 동시에 스윙하는 연주랄 수 있지만, 폴 화이트먼은 스윙 재즈이긴 해도 스윙감은 부족하다고 말 할 수 있을 듯하다.

진정의 의미에서 빅밴드 재즈의 완성은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하게도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가 백악관의 집사였기 때문이다. 흑인으로선 드물게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하며 몸에 익은 세련된 매너로 인해 공작(= Duke)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당연히 의상 및 식도락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했고, 여성 편력 또한 대단했다고 한다. 전성기 근무지였던 뉴욕의 코튼 클럽(Cotton Club)은 백인만 출입 가능한 일종의 카바레다. 유튜브에서 ‘Cotton Club 1030’으로 검색하면 몇몇 흑백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이 1984년 개봉한 영화 ‘코튼 클럽(The Cotton Club)’을 통해 금주법 시대의



그림 3. 폴 화이트먼 / 출처 : pinterest.co.kr/pin/559290847449736397

마약, 폭력, 매춘이 횡행하던 당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그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긴 했으나 진정한 악기는 빅밴드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밴드는 관객 구미에 맞는 댄스 음악이나 ‘정글’이라고 부른 밤무대용 쇼를 위한 곡을 연주했다. 이를 위해 평생 천여 곡 이상을 작곡했다고 알려졌다. 혼자서 모든 편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빌리 스트레이혼(Billy Strayhorn)과 협업을 했다. 오늘날 널리 연주되고 있는 ‘무드 인디고(Mood Indigo)’, ‘A 열차를 타세요(= Take the A Train)’, ‘코튼 테일(Cotton Tail)’, ‘리듬에 맞춰 흔들어(= Rockin' in Rhythm)’ 등등을 위시한 수많은 히트곡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루이 암스트롱처럼 그 역시 예술가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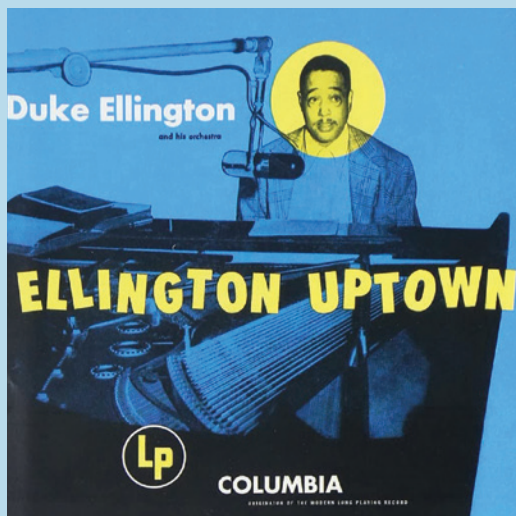


그림 4. 듀크 엘링턴의 ‘엘링턴 업타운’과 ‘엘링턴 마스터피스’ / 출처 : amazon.co.jp

자의식을 갖고 작곡 및 연주를 했다가보다 현장 속에서 스스로 핀 천재였다. 본격적인 그의 빅밴드 연주를 듣고 싶다면 ‘엘링턴 업타운(Ellington Uptown)’ 음반을, 그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다면 ‘엘링턴 마스터피스(Masterpieces by Ellington)’를 추천한다.

캔자스시티 재즈는 뉴올리언스, 시카고, 뉴욕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 부패한 정치인으로 명성(?)을 떨쳤던 톰 펜더가스트(Tom Pendergast)가 이 지역을 치외법권의 환락 도시로 만든 덕분에 일자리를 찾아 수많은 재즈 연주자가 모여들었다. 그들은 일과 후 매일 밤 모여 경쟁이 매우 치열한 즉흥연주 대결(= Jam Session)을 벌이곤 했다. 이 같은 토양 속에서 머잖은 미래에 비밥(be-bop)이라는 새로운 연주 스타일이 탄생하게 된다. 코튼 클럽과 마찬가지로 1996년에 개봉한 ‘캔자스 시티(Kansas City)’란 영화를 통해 당시 시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카운트 베이시(Count Basie)는 빅밴드 재즈 시기의

캔자스시티를 대표하는 리더이다. 뉴저지 레드뱅크 출신으로 이 동네 사람은 아니다. 토박이 빅밴드 리더였던 베니 모튼(Bennie Moten) 악단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 중이었다. 베니 모튼이 갑자기 사망하자 밴드를 인수하여 최고의 악단으로 키워냈다. 감미로우면서 독창적인 연주를 하여 쿨 재즈의 효시로 평가받는 레스터 영(Lester Young)도 이 악단에서 절정기를 맞았다. 사심을 밝히자면 스윙 재즈는 듀크 엘링턴보다도 카운트 베이시 연주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다. 국내에서 아직 재즈가 유행하기 전인 1990년대 초 시중에서 ‘버브 레이블 재즈(= Jazz en Verve)’ Vol.1이란 음반을 샀는데, 카운트 베이시 악단이 연주하는 ‘파리의 4월(= April in Paris)’이란 곡이 들어 있었다. 이것이 첫 만남이었다. 이후 가능한 한 그의 음반을 이것저것 찾아 들곤 했다. 그 중 ‘런던의 베이시(= Basie in London, 1956년 Verve 레이블)’, ‘카운트 베이시와 캔자스시티 7(=Count Basie and the Kansas City 7, 1962년 Impulse! 레이블)’, 재즈 가수 엘라 피츠제럴드(Ella Fitzgerald)와 찰떡궁합을 보여준 ‘엘라와 베이시!(= Ella And Basie!, 1963년 Verve 레이블)’를 추천한다. 🎧



그림 5. 카운트 베이시의 ‘런던의 베이시’와 ‘엘라와 베이시!’ / 출처 : amazon.com, pinterest.co.kr/pin/426364289720802119

				
베니 굿맨 '달빛'	베니 굿맨 '쌍쌍쌍'	글렌 밀러 '썸 밸리 세레나데'	듀크 엘링턴 'A 열차를 타세요'	카운트 베이시 '파리의 4월'

‘스윙’ 관련 유튜브 영상 QR 코드